



코로나시대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의 삶과 희망: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을 중심으로

서정아 선임연구위원
박선영 한세대학교 교수

요약¹⁾

-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복지시설 중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초점을 맞추어 코로나시대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의 경험과 바람, 희망 등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코로나시대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을 위한 실천적, 정책적 방안을 제시함.
- 연구방법으로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코로나시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의 삶과 희망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함.
- 조사 결과, 코로나 이전에는 자유, 가족, 여가 순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코로나 이후 가족, 건강, 돈 순으로 변화됨.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생활의 변화로 방역수칙 준수, 스마트폰 사용 증가, 신체활동 감소가 높게 나타남.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힘들었던 점(복수응답)은 외출을 못해서 답답함, 친구들을 만나지 못함,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안함 순이었음.
- 코로나 이후 가장 많이 한 활동은 미디어 감상, 게임, SNS 활동 순이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정서적 변화를 살펴보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응답은 중간보다 높는데 반해 우울감과 절망감을 느낀다는 응답은 중간보다 낮으며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 보다 유의미하게 스트레스와 우울, 절망감을 높게 응답함.
-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코로나시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 지원을 위한 방안을 제시함.

1) 본 블루노트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1년 "현안이슈 대응을 위한 혁신연구 지원" 사업의 "코로나시대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의 삶과 희망: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을 중심으로" 자율연구의 일환으로 작성된 것임.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10년 이후 기준 5년간 약 2만 5천명에서 3만명이 소년보호재판을 받고 있으며 그 중 약 80%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하는 1호 처분을 받고 있으나(법원행정처, 2016) 1호 처분을 받는 소년범의 상당수는 가정의 구조·기능적 어려움으로 보호자 위탁이 어려운 상황임(천정환, 2015; 서정아·박선영, 2018에서 재인용).

- 이러한 경우 소년법원 판사는 청소년쉼터, 사법형그림huis(청소년회복센터) 등을 운영하는 자를 신병인수 위탁보호위원으로 위촉하여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위탁하고 있으며 특히 2010년경부터 창원, 부산, 울산에서 시작된 청소년회복센터는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 처분 청소년에게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음(천중호, 2021).

[표 1] 소년법 처분의 종류

구분	보호처분의 종류	기간 또는 시간 제한	대상 연령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	6개월(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2	수강명령	100시간 이내	12세 이상
3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이내	14세 이상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1년	10세 이상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2년(1년 연장가능)	10세 이상
6	「아동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6개월(6개월 연장가능)	10세 이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6개월(6개월 연장가능)	10세 이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	10세 이상
9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	10세 이상
10	장기 소년원 송치	2년 이내	12세 이상

* 출처: 대한민국 법원, <https://www.scourt.go.kr/>, 2021. 12. 1. 검색.

▶ 2016년 5월 29일 일부 개정·공포된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소년법 제31조제1항제1호 처분 청소년에게 상담·주거·학업·자립을 지원하는 전담시설인 ‘청소년회복지원시설(기존의 청소년회복센터)’을 청소년복지시설로 법적 지위를 부여 하였으며 이를 통해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 처분 청소년이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기준을 마련하였음(청소년복지 지원법, <https://www.law.go.kr/법령/청소년복지지원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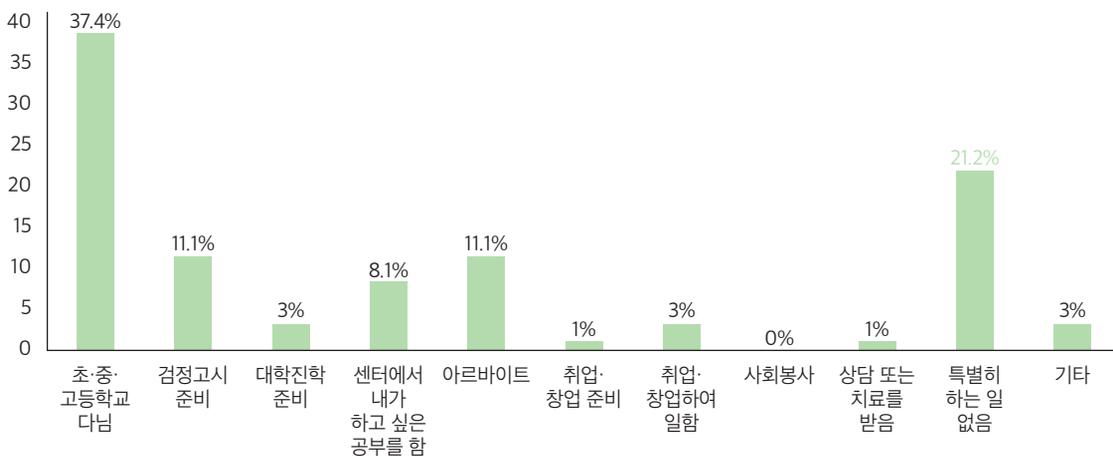
-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정의와 역할은 다음과 같음(여성가족부, 2021).
 -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을 감호위탁 기간 동안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4호,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임.
 - 즉, ① 법원 소년부 판사가 ②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 청소년을 ③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신병인수 위탁보호위원)에게 ④ 감호위탁 기간 동안(6개월, 연장가능), ⑤ 보호(5~10명)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을 지원하는 ⑥ 청소년복지시설을 의미함.

2. 연구결과

▶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 설문조사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21년 12월 24일부터 27일까지임. 2021년 12월 15일 기준 전국 16개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전수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윈도우용 SPSS 통계 패키지 Ver.22를 활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t 검증 등을 실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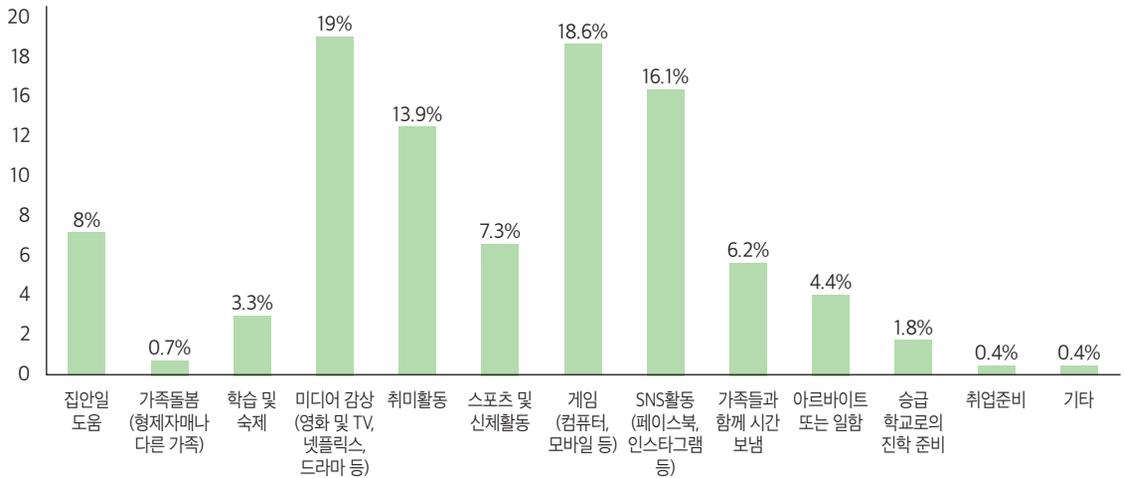
▶ 설문조사에 참여한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16개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중 13개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청소년 101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으며 64.3%는 남자 청소년, 35.7%는 여자 청소년임. 연령은 최소 13세, 최고 19세이며 16세가 27.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5세 21.4%, 17세 17.3%, 18세 14.3%, 13세 8.2%, 14세 7.1%, 19세 4.1% 순임.
- 학업성적에 대해 68.0%가 낮은 편, 29.3%가 중간, 2.7%가 높은 편이라고 응답함.
- 건강상태에 대해 69.4%가 건강하다, 25.5%가 보통, 5.1%가 건강하지 않다고 응답함.
- 가족의 경제상태는 62.9%가 중간, 26.8%가 낮은 편, 10.3%가 높은 편이라고 응답함. 코로나19로 인해 가족의 경제 상태가 나빠졌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33.7%이며 64.3%는 변화가 없다고 응답함.
-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들어오게 된 비행명을 살펴보면(복수응답) 기타가 33.1%로 가장 많고, 재산범죄(절도, 사기, 공갈) 32.3%, 폭력범죄(폭행, 상해)와 교통범죄 각각 14.3%, 금융범죄 3.8%, 성범죄(강간, 강제추행) 2.3% 순임. 기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범이 15명, 보호관찰 위반 7명, 처분변경 7명, 통고 5명 등이었음.
-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생활기간은 3개월 이내가 과반수 이상인 54.8%이며, 4개월~6개월이 36.0%, 7개월~12개월이 5.1%, 13개월 이상이 4.1% 순임.
- 현재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 평일에 주로 하는 일을 살펴보면 초·중·고에 다닌다는 응답자가 37.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특별히 하는 일 없다 21.2%, 검정고시 준비와 아르바이트 각각 11.1%, 센터에서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한다 8.1%, 대학진학 준비와 취·창업하여 일함 각각 3.0%, 취·창업준비와 상담·치료 받음 각각 1.0%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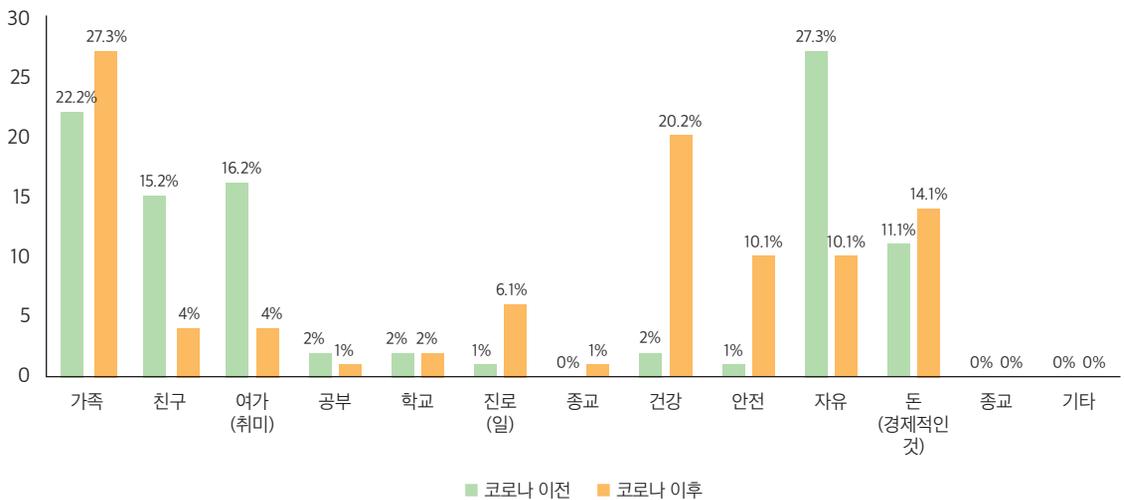
[그림 2] 평일에 주로 하는 일

- 코로나 이후 가장 많이 한 활동(복수응답)에 대해서는 미디어 감상(19.0%), 게임(18.6%), SNS 활동(16.1%)이 가장 많았으며, 집안일 도움(8.0%), 스포츠 및 신체활동(7.3%), 가족들과 함께 시간 보냄(6.2%), 아르바이트 또는 일함(4.4%), 학습 및 숙제(3.3%) 순으로 나타남.



[그림 3]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많이 한 활동(복수응답)

-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이전에는 자유(27.3%), 가족(22.2%), 여가(16.2%), 친구(15.2%), 돈(11.1%), 공부, 학교, 건강(각 2.0%), 진로, 안전(각 1.0%)인 반면, 코로나 이후로는 가족(27.3%), 건강(20.2%), 돈(14.1%), 안전, 자유(각 10.1%), 진로(6.1%), 친구, 여가(각 4.0%), 학교(2.0%), 공부, 종교(각 1.0%) 순으로 건강이 2.0%에서 20.2%로 중요성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가족도 22.2%에서 27.3%로 상승하였음.



[그림 4]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중요한 것

-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생활 변화를 살펴보면 방역수칙 준수(4.5점), 스마트폰 사용 증가(3.19점), 신체활동 감소(3.14점) 순이며, 잠자는 시간 증가(2.89점), 온라인 수업 참여(2.73점), 컴퓨터 사용시간 증가(2.72점), 잠자는 시간 불규칙(2.50점) 등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다고 응답함.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유의미하게 잠자는 시간이 길어졌다고 응답하였으며 고연령대(4.18점)가 저연령대(3.78점) 보다 유의미하게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생활의 변화

구분	전체 (N = 98)	남성 (N = 63)	여성 (N = 35)	t값	13~15세 (N = 36)	16세 이상 (N = 62)	t값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코로나19 이후 운동이나 산책을 하는 신체활동 시간이 줄어들었다.	3.14	2.94	3.40	0.09	3.00	3.16	0.00
코로나19 이후 잠자는 시간이 불규칙해졌다.	2.50	2.38	2.69	0.13	2.22	2.65	1.01
코로나19 이후 잠자는 시간이 길어졌다.	2.89	2.67	3.23	1.86*	2.75	2.94	0.95
코로나19 이후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증가하였다.	3.19	3.00	3.46	1.00	3.00	3.26	0.00
코로나19 이후 컴퓨터 사용시간이 증가하였다.	2.72	2.68	2.71	0.03	2.69	2.69	0.75
온라인 수업을 할 경우 등교 수업보다 더 열심히 참여 하였다.	2.73	2.60	3.00	0.78	2.69	2.77	0.36
방역수칙(마스크 착용, 실내에서 주기적 환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을 잘 지키고 있다.	4.05	4.00	4.09	1.29	3.78	4.18	1.78*

* p<.05, ** p<.01, *** p<.001

-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정서적 변화를 살펴보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응답은 중간보다 높은데 반해(3.47점) 우울감과 절망감을 느낀다는 응답은 중간보다 낮으며(2.29점)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유의미하게 스트레스와 우울, 절망감을 높게 응답함을 알 수 있음.

[표 3]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정서 변화

구분	전체 (N = 98)	남성 (N = 63)	여성 (N = 35)	t값	13~15세 (N = 36)	16세 이상 (N = 62)	t값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나는 코로나19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	3.47	3.22	3.91	2.93*	3.31	3.56	4.64
코로나19 이후 우울감, 절망감을 자주 느꼈다.	2.29	1.97	2.89	0.55***	2.19	2.35	1.52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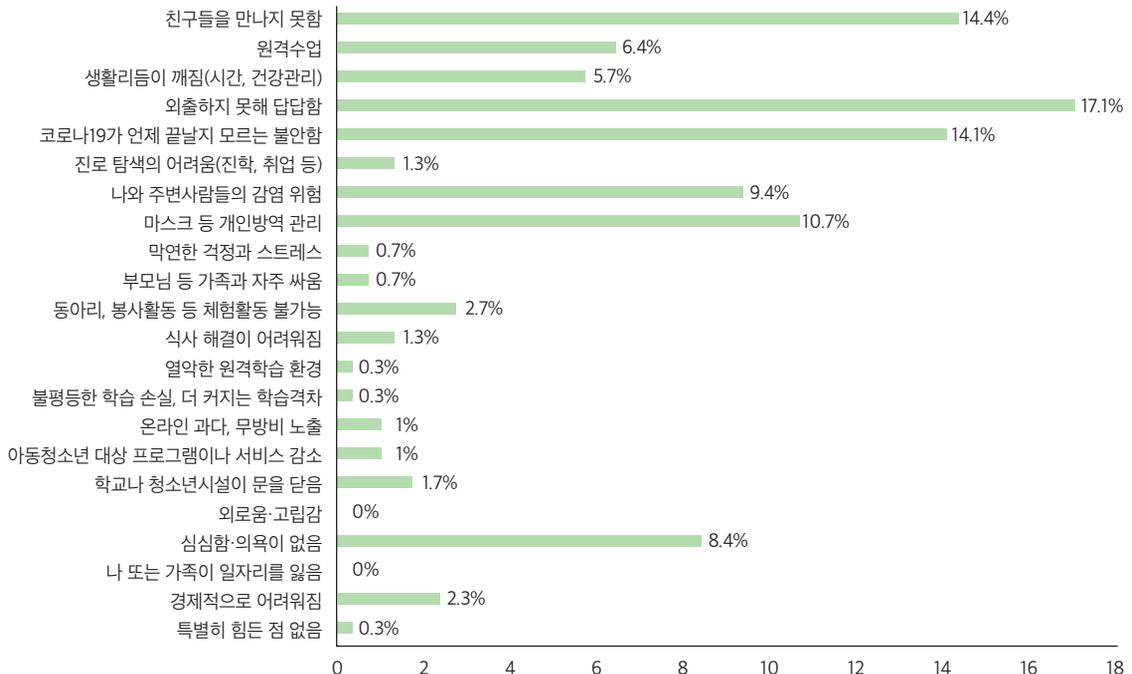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관계의 변화를 살펴보면,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었다(3.05점)가 가장 높았으며 모든 응답에서 남녀 차이가 유의미하였음.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시간, 나 혼자 보내는 시간,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유의미하게 높았음.

[표 4]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관계 변화

구분	전체 (N = 98)	남성 (N = 63)	여성 (N = 35)	t값	13~15세 (N = 36)	16세 이상 (N = 62)	t값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코로나19 이후 또래관계에 대한 불안이 증가하였다.	2.11	1.79	2.69	3.06***	2.11	2.11	0.71
코로나19 이후 성적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였다.	2.17	1.83	2.74	7.18**	2.22	2.11	0.58
코로나19 이후 나 혼자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였다.	2.61	2.19	3.26	0.94***	2.33	2.71	2.05
코로나19 이후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증가 하였다.	2.90	2.56	3.43	0.41***	2.83	2.89	3.64
코로나19 이후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었다.	3.05	2.95	3.14	0.33	3.08	2.98	0.10
코로나19 이후 가족 간의 갈등이 늘었다.	2.01	1.76	2.37	0.21**	2.11	1.90	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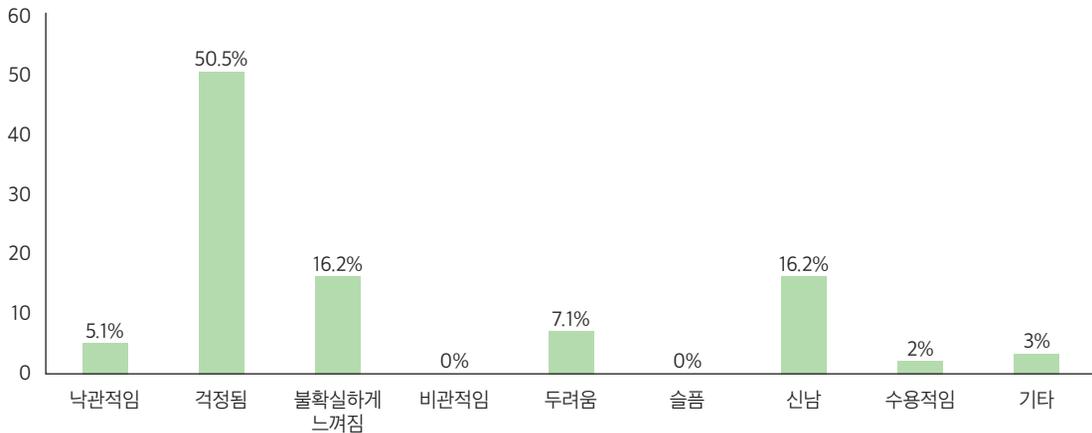
* p<.05, ** p<.01, *** p<.001

- 코로나 이후 자신의 삶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던 점에 대한 주관식 답변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외출 제한(11명), 집에 오래 있게 됨(6명), 휴대폰 많이 함(4명), 살찜(3명), 피부가 안 좋아짐(2명), 불규칙한 생활(2명), 독서를 많이 함(2명) 등이며 이외에 1명씩 언급한 내용은 귀찮아짐, 바른생활, 일하기 쉬움, 일자리 없음, 잠 많이 잠, 생각 많이 하게됨 등으로 장점과 단점을 모두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힘들었던 점에 대한 복수응답을 살펴보면 외출 못해서 답답함이 17.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는 점(14.4%),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안함(14.1%), 마스크 등 개인방역 관리(10.7%), 나와 주변 사람의 감염 위험(9.4%), 심심함·의욕없음(8.4%) 등 이었음.



[그림 5]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장 힘들었던 점(복수응답)

- 코로나19로 인해 좋았던 점에 대한 주관식 답변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학교를 안감(17명), 마스크 써서 얼굴 가리기(6명), 가족과 함께한 시간(4명), 집에 있기(4명), 나가지 않아서 비행 저지르지 않음(2명), 생각하게 됨(2명), 사람 안 만나기(2명) 등이었으며 이 외에 각 1명이 제시한 것은 혼자 있기, 자가격리 지원금, 알바하기 편함, 하기 싫은 것 안하기, 돈 절약됨, 공부하기, 청결해지기임.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에 대한 주관식 답변으로 가장 많은 것은 방역지침 준수(17명)와 마스크 지원(17명)이며 다음으로 재난지원금(10명), 백신접종(9명), 손소독제 지원(4명), 외출 제한(3명), 백신 부작용 개선(3명), 방역수칙 개선(2명), 물품지원(2명), 취업지원(1명), 백신개발(1명), 코로나 종식(1명) 순임.
- 국가가 줄 수 있는 도움에 대한 주관식 답변으로 가장 많은 응답은 재난지원금 지급(43명)이며 다음으로 마스크 지원(7명), 코로나 종식(3명), 취업지원(2명), 생필품 지원(2명), 방역 강화(2명), 방역 다양화(2명), 가족과 만남(2명), 백신 안정성 보장(2명), 생계지원(2명), 자유(1명), 안내문자(1명), 영업시간 완화(1명), 마스크 벗기(1명), 봉사활동(1명) 순임.
- 코로나가 끝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주관식 답변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답변은 마스크벗기(36명)이며 다음으로 놀러가기(18명), 외출(15명), 여행(13명), 친구 만나기(11명), 해외여행(8명), 가족여행(8명), 가족과 시간 보내기(5명), 외박(3명), 대면수업(2명), 외식(2명), 취업(2명) 등이며 이외 1명씩 답변한 것은 못한 것 하기, 노래방가기, 학원가기, 알바하기, 여럿이 모이기, 밤새 놀기, 데이트하기, 화장하기, 공연관람, 대중교통 이용, 청소년 클럽가기, 백신패스 삭제 등 이었음.
- 미래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 지에 대한 응답으로 과반수 이상이 걱정됨(50.5%)이라고 답하였으며 다음으로 불확실함과 신남이 동일하게 16.2%이며, 두려움(7.1%), 낙관(5.1%), 기타(3.0%), 수용적(2.0%) 순임.



[그림 6] 미래에 대한 느낌

- 현재 행복한 정도에 대해서는 5점 척도에서 평균 4.51점으로 행복하다고 답하였으며, 성별, 연령대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음.

[표 5] 행복도

구분		빈도(명)	평균	t값
전체		97	4.51	
성별	남성	63	4.35	0.21
	여성	34	4.76	
연령별	13세~15세	36	4.47	0.50
	16세 이상	61	4.51	

* p<.05, ** p<.01, *** p<.001

- 현재 삶의 만족도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한다(10점)와 매우 불만족한다(1점) 척도가 주어졌으며, 평균은 6.44점으로 중간값(5점)을 상회하고 있으며, 남자 청소년(6.89점)이 여자 청소년(5.74점)보다 유의미하게 더 만족함을 알 수 있었으며 연령대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음.

[표 6] 삶의 만족도

구분		빈도(명)	평균	t값
전체		98	6.44	
성별	남성	63	6.89	3.23*
	여성	35	5.74	
연령별	13세~15세	36	6.44	0.03
	16세 이상	62	6.50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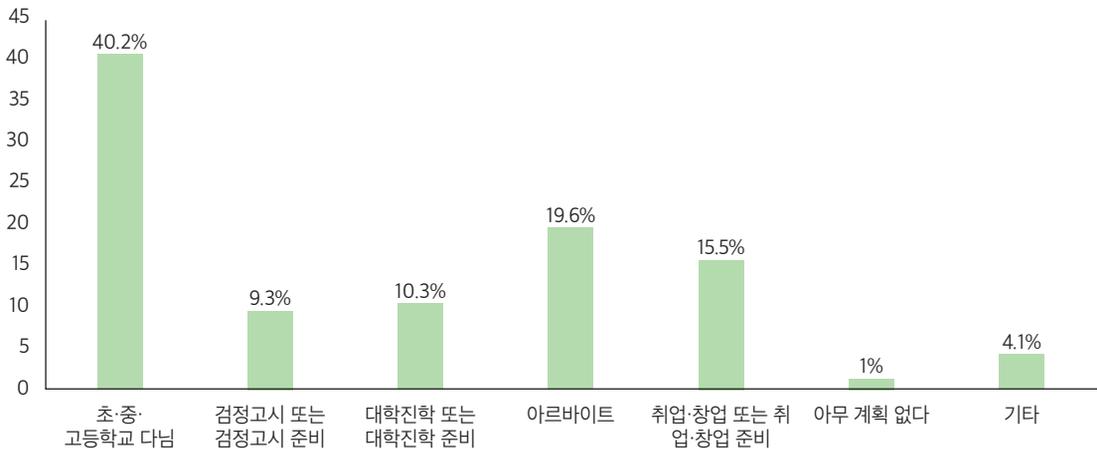
-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만족도를 살펴보면 5점 만점에 평균 4.22점으로 만족한다는 의견이었으며 남자 청소년(4.48점)이 여자 청소년(3.77점)보다, 고연령(4.37점)이 저연령(3.97점)보다 유의미하게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음.

[표 7] 현재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만족도

구분		빈도(명)	평균	t값
전체		98	4.22	
성별	남성	63	4.48	5.68**
	여성	35	3.77	
연령별	13세~15세	36	3.97	0.33*
	16세 이상	62	4.37	

* p<.05, ** p<.01, *** p<.001

-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 하고 싶은 프로그램에 대한 주관식 답변으로는 운동(12명)을 가장 많은 청소년들이 제시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캠프(6명), 외출(4명), 진로상담(3명), 심리상담(3명), 검정고시 준비(3명), 외박(2명), 자유(2명), 체험활동(2명), 다양한 프로그램(2명), 알바교육(2명), 요리실습(2명), 자격증(2명), 뉴스(2명) 등이며 이외 각 1명이 제시한 답변은 맛있는 음식, 추억 쌓기, 영화보기, 외박하기, 공예, 댄스, 종교활동, 취미활동, 노래하기, 바리스타 교육, 송년회, 근로 계약서 교육, 과외, 취업지원 등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프로그램과 여가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었음.
-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 생활한 후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주관식 답변으로는 규칙적인 생활(16명)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으며 다음으로는 가족관계 개선(12명), 미래계획(6명), 인내심(6명), 학교생활(6명), 배려심(4명), 공부하기(4명), 반성하기(4명), 금연·금주(4명), 청결(3명), 감정표현(3명), 경제관념(3명), 긍정적 태도(3명), 분노조절(2명), 생활패턴개선(2명), 성격개선(2명) 등이며 이외에 각 1명이 언급한 것은 예의, 리더십, 대학진학, 사고폭, 식습관, 안되는 행동인지, 태도변화, 성숙, 차분 등이었음.
-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 개선해야할 사안에 대한 주관식 답변으로 가장 많은 것은 외출제한 완화(13명), 외박 완화(9명), 휴대폰 사용시간 증가(3명), 여행(3명), 센터입구길 보수(3명), 침대(2명), 다양한 프로그램(2명), 휴대폰압수 폐지(2명), 이외에 1명씩 답변한 것은 개인시간, 자유, 퇴소, 계단, 종교의 자유, 보일러 안됨, 식탁의자, 블루투스 이어폰 허용, 물수압 개선, 당구 등이었음.
- 퇴소 후 계획으로는 40.2%가 초·중·고를 다닐 계획이었으며, 다음으로는 아르바이트(19.6%), 취·창업과 준비(15.5%), 대학진학과 준비(10.3%), 검정고시와 준비(9.3%), 기타(4.1%), 무계획(1.0%) 순이며 기타 계획으로는 군입대, 자격증 취득, 친구랑 놀러 다님, 편입준비라고 답하여 대다수 응답자가 학업, 취업을 계획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림 7] 퇴소 후 계획

3. 정책제언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음.

- 2021년 12월 기준 전국 총 16개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중 설문조사에 참여한 13개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시설별 청소년 평균수는 약 8명임.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생활가능 인원이 5명에서 10명임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도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 안정적인 운영을 지속하였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음.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도 취약 청소년에 대한 보호 수요는 여전하거나 오히려 확대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음.
-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이 평일에 하는 일은 코로나시대에 학업과 진로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남. 특별히 하는 일이 없어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경우 또한 20% 이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수치임.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재난 상황에서도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이 욕구와 역량에 따라 하고자 하는 일을 지속하고 꿈과 진로를 찾아나갈 수 있도록 청소년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시대에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 경험한 욕구나 어려움에 대해 조사하였으나 이러한 욕구나 어려움이 일반 청소년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파악하지는 못함. 후속 연구에서는 취약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거나 불평등을 경험하지는 않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코로나19는 우리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에게도 그러함. 조사 결과,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은 코로나19 이전에 '자유', '가족', '여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데 반해 코로나19 이후에는 '가족', '건강', '돈' 순으로 변화하여 특히 '가족'과 '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음. 이러한 인식 변화는 원가족 가족구성원과의 화해와 이해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의 경우 위탁 기간이 종료되면 대부분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야 하는 만큼 코로나19로 인한 인식변화가 실질적인 가족관계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경제 상태가 변화하지 않은 청소년이 과반수이상을 차지하나 코로나19로 인해 가족의 경제상태가 나빠졌다고 응답한 청소년도 1/3에 달해 무시할 수 없는 비율을 나타냄. 선행연구들에서 가정경제의 부정적 변화가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함을 고려할 때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 생활했던 청소년이 원가정으로 복귀했을 때 가족경제 악화로 촉발된 가정 내 문제가 재비행을 촉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예방 차원의 환경 검토와 관심,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이 코로나19 이후 가장 많이 한 활동은 미디어 감상, 게임, SNS 등 온라인 활동이 대다수를 차지함. 코로나19로 인한 외부 단절과 활동 부족에 대해 청소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도 실시할 수 있는 다양한 야외, 신체 오프라인 활동 방법에 대한 고민과 시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 과정에서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지도 방법론과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하는 것 또한 중요할 것으로 보임.
- 방역수칙과 관련하여 연령에 관계없이 비교적 높은 응답을 나타내나 높은 연령대보다 낮은 연령대의 방역수칙 준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방역수칙 준수 교육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여자 청소년이 사회관계에 대한 변화를 더 민감하게 느끼고 스트레스, 우울, 불안을 더 호소하는 만큼 남자 청소년과는 차별화된 여자 청소년과 이틀 시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개발·보급될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와 관련한 도움으로 방역지침 준수와 마스크 지원이 상당히 제시되었음을 고려할 때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생필품, 마스크 지원 확대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생활의 장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청소년회복지원시설 환경 개선과 체험활동, 취업지원, 예체능 활동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이를 위해 지역사회 자원이나 복지기관 등과의 연계 협력, 후원 등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 또한 필요함.
-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의 경우 다양한 방식의 생활지도(외출 및 외박 제한, 휴대폰 사용 금지 등)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았음. 그러나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 긍정적 생활습관의 형성, 비행 행동의 교정, 부정적 자극으로부터의 보호와 회복, 적응유연성(resilience) 확대 등을 목표로 하는 시설이니 만큼 청소년 스스로 이러한 자유의 제한이 일정 부분 필요한 것임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교육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분석 결과, 일부 어려운 점에도 불구하고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의 행복도와 삶의 만족도,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 청소년의 긍정적 삶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초창기에 경남, 부산, 울산 등지에서 시작되어 최근 들어 광주, 경기, 제주 등으로 확대되는 추세임. 그러나 여전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며 전국적으로도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수요와 필요성에 비해 그 수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움. 위험이나 재난 발생시 취약 청소년과 그 가족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수 있으며 이러한 때에 취약 청소년과 그 가족을 위한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 국가 차원의 관심과 노력이 더욱 요구됨을 고려할 때, 약한 범죄로부터의 보호와 회복이 필요한 청소년이 가족과 같은 따뜻한 환경에서 다양한 긍정적 경험을 통해 변화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 전국적으로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서정아·박선영(2018).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보호지원 프로그램 및 평가지표 개발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여성가족부(2021). 청소년사업안내. 서울: 여성가족부.
 천중호(2021). 청소년회복지원센터의 의미. 2021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랜선포럼 자료(미발행).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대한민국 법원. <https://www.scourt.go.kr/>. 2021.12.1. 검색.
 청소년복지 지원법. <https://www.law.go.kr/법령/청소년복지지원법>. 2021.12.1. 검색.